

나만의 발코니 만들기

Practical Magic, Balcony

그냥 두자니 아깝고 바깥보다 딱히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공간, 발코니
하지만 애매모호한 공간에 간단한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집 안에서 가장 빛나는
곳으로 변모할 수 있다.

에디터 김기영 사진제공 파이인테리어





1 벽면을 통유리창으로 연출한다

발코니 밖으로 보이는 전망이 괜찮다면 전면을 통유리창으로 꾸며보는 것도 좋다. 여기에 길다란 높이의 화초나 조화 등을 다양하게 놓으면 이국적인 느낌의 탁 트인 실내 정원이 완성된다.

2 발코니에 나무 데크를 깐다

발코니에 데크를 깔고 나무 의자를 배치한다.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허브와 조화를 브라운 컬러의 화병에 놓으면 따뜻한 느낌의 자연주의 공간으로 변신한다.

3 자연의 운치가 느껴지는 발코니

발코니가 그다지 넓지 않다면 이 공간에 뭔가를 들여놓기란 쉽지 않다. 그럴 땐 깔끔한 일본풍의 정원을 연출하는 것도 방법. 바닥에 하얀 자갈을 촘촘히 깔고 벽 마감재를 나무로 연출하면 차분한 느낌의 젠 스타일이 완성된다.





발코니에 레스토랑을 들인다

넉넉한 공간의 배란다가 있는 주택이라면 그 공간을 그대로 받치하기엔 아쉬움이 크다. 이 경우 천장을 통 유리창으로 연출해 더욱 넓어 보이게 하고 긴 식탁과 의자를 배치해보자. 제 2의 주방으로 거듭나는 것은 시간문제다. 이때 겨울철을 대비해 바닥에 단열 시스템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이다.



1 발코니를 자쿠지로 활용한다

실외로 연결된 발코니가 있는 주택이라면 빈 공간에 일본식 자쿠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자쿠지 옆에는 나무를 배치해 실외 정원 같은 느낌을 주고 나무로 된 바닥재를 깔면 매일 실외 온천에 온 듯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.

2 발코니에 부스를 설치한다

발코니를 반으로 분리해 부스를 설치하면 새로운 개념의 독립 공간이 탄생한다. 여기에 티 테이블과 펌프 가꿔왔던 화초들을 배치하면 굳이 분위기 좋은 야외 카페에 갈 필요가 없다.

3 실내 정원 같은 발코니

발코니를 정원으로 연출하고 싶은 주부들이 참 많다. 하지만 무조건 넓게 트다고 해서 정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. 이처럼 트지 않은 발코니에 아메리칸풍의 혼들의자와 플라워 프린트 패브릭, 큼직한 화분 여러 개를 들여놓으면 보기에든 아늑한 공간이 완성된다.

